

# 전문대졸 이상 취업률 67.7%로 소폭 ↑

### 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통계 의약계열 83.3%...남녀 격차 더 벌어져

의약계열 출신 졸업자의 취업률이 1위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취업률도 70%를 넘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반면 인문계열은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남성과 여성 간 취업률 차이는 계속해 벌어지고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26일 발표했다.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의 취업 상황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일반대학원 졸업자 55만 5808명을 전수조사했다.

전체 취업자는 33만 2839명으로 집계돼 취업대상자 49만 1392명의 67.7%가 취업했다. 전년(66.2%)보다 1.5%p 증가했다.

계열별로 보면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졸업생의 83.3%가 취업했다. 공학계열을 나온 졸업생들도 71.7%가 취업해 전체 취업률보다 높았다.

이외 △사회계열·자연계열·예체능계열(각 64.2%) △교육계열(64.1%) △인문계열(5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열은 전년(56.0%)보다는 취업률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계열별 취업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98.1%), 공학계열(94.9%), 교육계열(92.2%)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취업한 이들의 비중은 예체능계열(17.1%), 인문계열(9.6%) 순이었다. 1인 사업 또는 창업자는 예체능계열(4.9%), 인문계열·사회계열(2.3%) 순이었으며, 해외취업자는 인문계열(2.9%), 사회계열(1.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일정 기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을 뜻하는 유지취업률은 공학계열(83.5%)과 의약계열(82.5%), 교육계열(80.1%)이 전체 유지취업률(79.0%)을 웃돌았다.

반면 사회계열(78.2%), 자연계열(76.4%), 인문계열(74.7%), 예체능계열(65.7%)은 전체 유지취업률보다 낮았다. 공학계열(40.9%), 자연계열(26.2%), 사회계열(13.2%)은 제조업에 주로 종사했다. 인문계열 출신은 도·소매업에 취업한 이들이 1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의약계열 출신의 72.0%는 보건·사회복지업에 취업해 전공을 가장 잘 살리고 있었다. 교육계열도 33.5%가 교육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을 잘 살리는 편이었다.

##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계열별 취업자 현황

(단위:명)

구분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	취업 현황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 창작활동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고등교육기관	55만5808	49만1392	33만2839	67.7	30만1182	2895	656	3058	6290	1만8758	
인문계열	4만9512	4만8833	2만3307	57.1	1만9793	682	6	41	542	2243	
사회계열	14만4586	12만9265	8만3023	64.2	7만6028	819	243	51	1917	3965	
교육계열	3만2964	3만4244	1만9506	64.1	1만7987	41	21	81	209	1167	
공학계열	14만2770	12만6393	9만6707	71.7	8만9590	731	73	162	1015	2676	
자연계열	5만9141	4만9320	3만1653	64.2	2만8802	292	278	57	556	1668	
의약계열	5만9498	5만6530	4만7090	83.3	4만6210	58	13	1	195	613	
예체능계열	6만17337	5만8627	3만7653	64.2	2만6412	272	22	2665	1856	6426	

※ 계열분류는 '2018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8)'을 적용함

##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변동폭 (전년대비 2018년)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2018년	57.1%	64.2%	64.1%	71.7%	64.2%	83.3%	64.2%
2017년	56.0%	62.6%	63.7%	70.1%	62.5%	82.8%	63.0%
변동폭	1.1%p	1.6%p	0.4%p	1.6%p	1.7%p	0.5%p	1.2%p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69.6%로, 여성(66.0%)보다 3.6%p 높았다. 전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 차이가 3.0%였던 것에서 0.6%p 늘었다. 남녀간 취업률 차이는 2016년 2.6%, 2017년 3.0%, 2018년 3.6%로 증가 추세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오르고 있는 건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일자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정시 접수 시작...3번의 기회 살리자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6일부터 시작했다. 대학별로 31일까지 3일 이상 기간을 정해 원서를 접수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群)으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험생은 각 모집 군별로 1차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다.

◇ 수시에 합격했는데 정시에 지원할 수 있나 =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즉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총원합격자도 마찬가지로 다. 단 KAIST와 경향대 등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은 복수지원과 2중등록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 합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으면 정시모집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하다.

재수생의 경우 지난해 정시모집에 지원했다라도 다시 통합지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1년마다 회원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지난해 정시모집 때 가입한 아이디(ID)로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 대학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는 △경향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이다.

◇ 원서 작성 후 결제한 뒤 수험번호 확인해야 = 원서 접수

### 응시 대학별 접수날짜 · 마감시간 등 점검 필수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 불가 GIST · 광주가톨릭대 · 사관학교 등 자체 접수

격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 원서접수 마감일 등 입시 일정 꼼꼼히 챙겨야 = 정시모집 관련 입시 일정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학마다 원서접수 마감일과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와 서강대는 원서접수 마감일이 31일로 같다. 하지만 마감시간은 고려대가 오후 5시, 서강대가 오후 6시로 다르다.

지원할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일과 시간을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너무 압박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 좋다.

◇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통합회원 가입을 해두자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에어플라이'와 '진학어플래이' 중 1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둘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4년제 대학 188개교, 전문대 137개교, 기타 5개교에 지원 가능하다. 올해 수시모집 때 작성했던

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원서를 저장한 후 결제까지 해야 완료된단.

간혹 보관함에 원서를 저장해 놓고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수험생이 있다. 입학전형료를 결제하고 수험(접수)번호까지 확인해야 정상적으로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이다. 결제 후에는 원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원서 외에 추가 제출할 서류 있는지 점검 = 지원 대학, 전형, 학과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회균형전형의 경우 온라인 접수 외에 자격을 증명하는 기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졸업 연도에 따라 혹은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입학원서, 졸업증명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일부가 누락될 경우 지원 결격사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류 제출 기한에도 주의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기록물관리 '최우수기관'

### 국가기록원 평가 99.1 획득...3년 연속 '가' 등급 영예

광주시교육청은 26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기록관리 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전체

479개 평가대상 가운데 평가유예 기관을 제외한 3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관리 서비스 및 업무개선 영역의 총 17개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점수인

87.2점보다 월등히 높은 99.1점을 획득함으로써 3년 연속 최우수 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4곳과 전북지방병무청, 서울세관 등 특별행정기관 10곳 등이며, 교육기관 중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등 5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신봉호 시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효율적이고 우수한 기록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기록물관리 업무지원을 통한 교육행정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및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